

2014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내 용

1. 개요
2. 국가별 국가혁신지수
3.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추이
4. 요약 및 정리

작 성

안병민 연구위원 | bmahn@kistep.re.kr | 02-589-2245



1. 개요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11년부터 「국가혁신지수보고(國家創新指數報告)」를 매년 발표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서 혁신형 국가가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06년부터 국가혁신지수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 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는 '11년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국가혁신지수보고(國家創新指數報告) 2014(15.7월)」는 다섯 번째 보고서임

※ 중국 과학기술부의 「국가혁신조사제도 구축사업 방안」에 따르면 「국가혁신지수보고」는 국가혁신조사 제도의 중요한 결과물로 국가 차원에서 주로 외국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혁신 역량평가보고서

- 「국가혁신지수보고」의 분석결과는 「국가 제12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
- * 중국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인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의 전략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분야의 5개년('11년~'15년) 계획에 해당
- ** 명확한 기능과 합리적 구조, 선순환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국가혁신체계를 수립하고 국가 종합혁신 역량의 세계 순위를 현재 21위에서 '15년까지 18위로 도약

● 「국가혁신지수보고」는 다른 국가들에서 발간하는 혁신지수보고서와 같이 중국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국 내외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지표체계를 개발
- 중국의 국가혁신역량 특징과 국제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
- ※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방식을 기준으로 국가의 발전 유형을 자원 수출형, 경제의탁형, 기술혁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세 번째 방식인 기술혁신형 발전을 중국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혁신형 국가 반열 진입」을 중장기 발전계획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중국 국가혁신지수는 5개 부문(1급 지표) 30개 세부지표(2급 지표)로 전 세계 40개 국가의 국가혁신지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

- 혁신자원, 지식창출, 기업혁신, 혁신성과 및 혁신환경 등 5개 측면에서 국가혁신지수 지표체계 구성
- 분석대상 국가는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98%를 차지하는 40개국으로 설정
- 혁신지수는 '12년~'13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13년도 지수를 산출
- 국가혁신지수의 산출은 벤치마킹 분석법*중 Min-max방식을 활용
- * 기준치를 설정한 다음 해당 기준치를 표준으로 모든 평가대상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격차를 분석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

● 이번 호에서는 중국 「국가혁신지수보고(國家創新指數報告) 2014」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중국 국가혁신지수 지표체계]

- 중국 국가혁신지수는 과학기술 지식의 생성과 확산, 상용화의 전체 과정을 5개 분야의 30개 세부지표로 모형화
- 복합지수의 산출은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보고서의 방법론을 차용
 - 각 세부지표별 표준화는 Min-max법으로 정규화, 세부지표별 가중치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는 가중평균 방식 활용

부문	세부지표
1. 혁신자원	1. 연구개발(R&D)투자의 집중도 2. 연구개발인력의 집중도 3.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규모 4. 정보화의 발전 수준 5. 연구개발투자의 세계 투자비중
2. 지식창출	6. 학술부문 연구개발 투자의 백만 달러당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수 7. 과학연구인원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8.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식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9.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 10. 연구원 만 명당 특허 등록 건수
3. 기업혁신	11. 삼극특허 건수의 세계 비중 12. 산업 부가가치 대비 기업 연구개발투자 비중 13. 기업 연구인력 만 명당 PCT특허 수 14. 종합기술의 자립도 15. 총 연구개발 인력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비중
4. 혁신성과	16. 노동생산성 17. 에너지소비 단위당 GDP 산출 18. 유효 특허수량 19. 제조업수출 대비 첨단기술 산업 수출 비중 20. 지식집약형 산업 부가가치의 세계 비중
5. 혁신환경	21.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 22. 정부규제의 기업 부담도 23. 거시경제의 안전성 24. 연구 및 교육 등 관련 전문서비스 현황 25. 반독점정책의 효과 26. 직원소득과 효율성의 상관도 27. 기업 혁신사업의 벤처투자 자금 유치 난이도 28. 산업클러스터 발전현황 29. 산학연 협력 수준 30. 정부구매의 기술혁신 영향

2. 국가별 국가혁신지수

● 우리나라는 3개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어 종합 4위를 나타냄

- 혁신자원 부문 2위, 지식창출 부문 1위, 기업혁신 부문 3위로 전년대비 모두 1위 상승하였으며 5개 부문 종합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4위

● 중국 국가혁신지수에서 혁신활동이 가장 우수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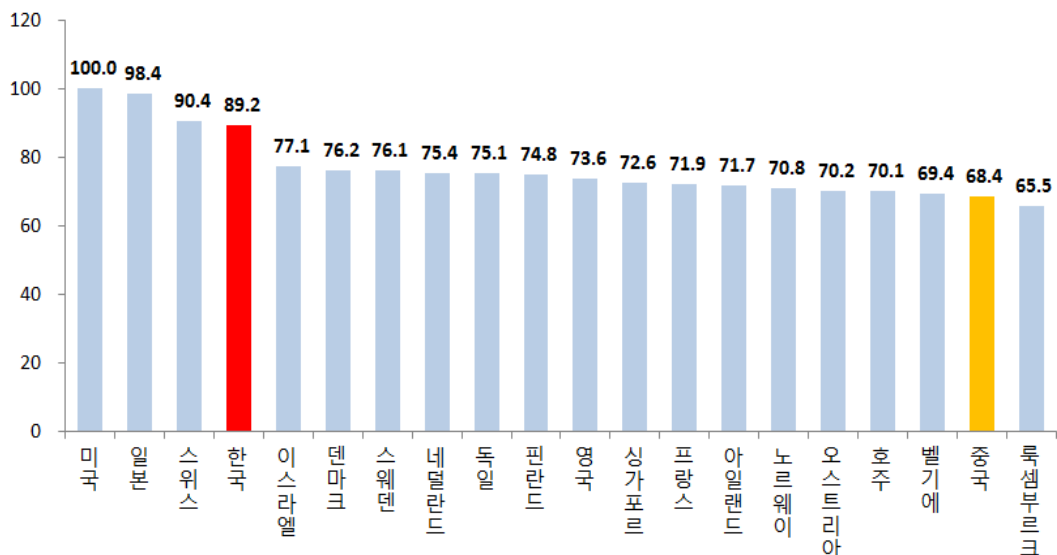
- 미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비교대상 40개국 중 1위를 차지
- 다음으로 일본과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순으로 상위 5개 국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 유지
- 10위 권 내에서 볼 때 큰 변화는 덴마크가 전년대비 3위 상승한 6위를 나타냈으며 반대로 핀란드는 전년대비 3위 하락한 10위를 차지

※ 상위 10개국의 분포를 살펴보면 북미 1개국, 아시아 3개국, 유럽 6개국으로 유럽이 다수를 차지

[표 1] 주요국가의 국가혁신지수 순위 변화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13년	4	1	2	9	13	11	19
'12년	4	1	2	10	13	12	19
순위변화	-	-	-	↑1	-	↑1	-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2015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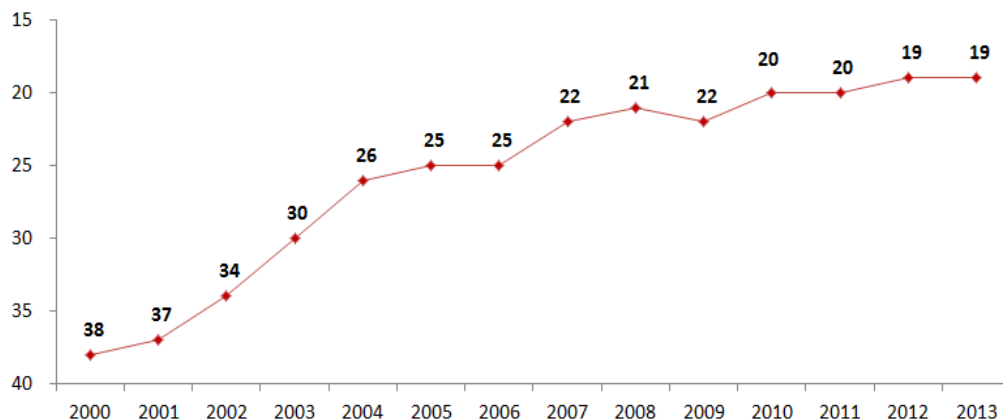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2015년 7월

[그림 1] '14년도(평가대상 '13년) 중국 국가혁신지수의 상위 20개국 국가별 현황

- 이스라엘은 막대한 혁신자원 투입과 높은 기업혁신역량을 나타내어 종합 5위를 차지
 - 반면, '12년 11위를 차지했던 싱가포르의 기업혁신 부진으로 12위로 순위가 하락
 - 스위스의 경우 혁신자원과 혁신환경 부문에서 1위를 나타냈으나 기업혁신 부문의 순위가 전년대비 6위 하락하여 종합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3위를 유지
 - 덴마크(6위), 스웨덴(7위), 핀란드(10위) 등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높은 순위를 유지
- 40개국 전체의 전년대비 순위변화는 대체로 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가장 큰 순위변화를 나타낸 국가는 덴마크(3위 상승, 6위), 아일랜드(3위 상승, 14위), 핀란드(3위 하락, 10위)이며 이외의 국가는 ± 1 위의 변동으로 변화폭이 작음

3.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추이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2006~2020)」* 발표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 '과학기술 대국'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평
 - * 중국 국무원이 제시('06년 2월)한 '20년까지의 중국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에 해당
 - 혁신자원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R&D투자액의 절대규모와 인력규모도 세계적인 수준
 - 지식창출 역량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한 꾸준히 향상
 - 중국의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기술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 또한 향상되어 '대국'에서 '강국'으로 변모했다고 평가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00년 38위에서 '13년 19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13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순위(19위)를 나타냈으나 시계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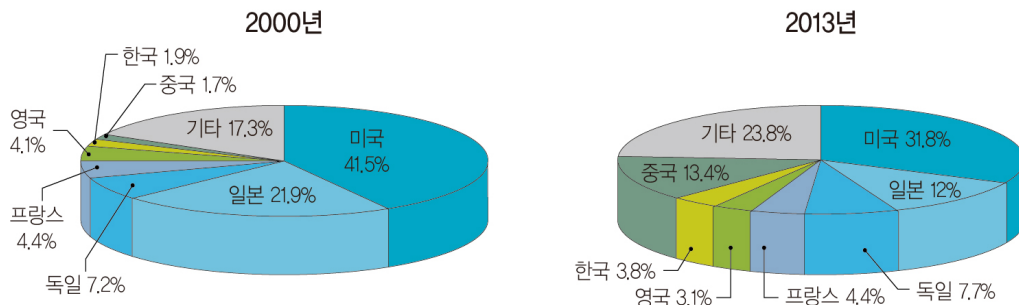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2015년 7월

[그림 2] 중국 국가혁신지수의 중국 순위 변화 추이

●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수준을 나타냄

- 중국의 '13년 R&D투자 규모는 1,912.1억 달러로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 일본의 R&D 투자는 최근 30여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세계 2위를 유지했으나, '13년도의 R&D투자는 1,709.1억 달러로 중국보다 낮음
- 미국의 경우 R&D투자의 세계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2.4배, 일본의 2.7배 수준*을 나타냄
 - * 우리나라의 '13년도의 R&D투자 542억 달러에 비해서는 8.4배 수준
- BRICS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R&D투자 세계 점유율은 '00년 3.8%에서 '13년 18.2% 수준으로 성장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2015년 7월

[그림 3] 주요국 R&D 투자의 세계 점유율 변화('00년-'13년)

● 중국의 R&D 인력*은 '13년 353만 3천명으로 전세계의 30.5%를 차지하여 세계 1위 수준

- * 연구원과 연구보조인력을 모두 포함한 인력이며, 자신의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실질연구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수치
- R&D 투자에 비해 인력은 아시아지역의 집중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중국의 R&D 인력 성장세는 매우 높은 수준
 - * '13년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은 3.7%인 반면 중국은 10.9%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
-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과학기술 인적자원 대국이나 최근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는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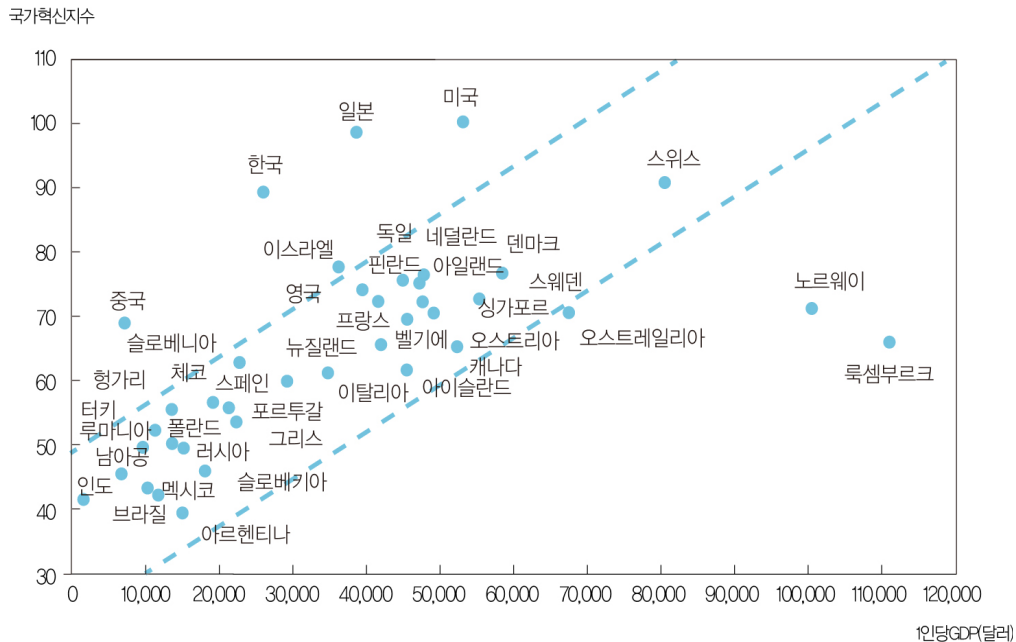
- 중국은 개혁개방이 이후 '10년 국내총생산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지난 10년간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안정적으로 높아져서 '13년 53.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3년에 비해서 13.4%p 증가한 셈
 - * 대상년도 이전 5년 기간 동안의 GDP 연평균 성장률 중에서 기술진보에서 기인한 정도
 - ** '08년 ~ '13년 사이 중국의 GDP는 연평균 9.3% 성장하였으며 이중 53.1%가 기술진보에서 기인

● 중국과 혁신형 국가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19위를 기록했으나 상위 국가와의 지수 격차는 감소
 -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68.4점으로 순위변동은 없으나 전년보다 3.2점이 상승하였으며 18위와의 격차는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듦
-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때 「국가 제12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 설정한 '15년 18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의 혁신역량 수준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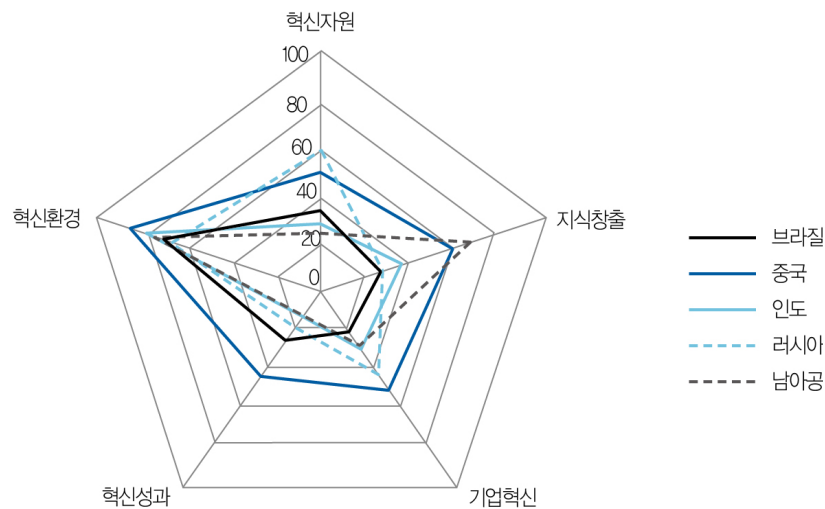
- 중국의 '13년 인구 1인당 GDP는 6,800달러 정도로 40개국 중에서 인도와 남아공보다 높은 수준
- 그러나 중국의 혁신지수는 인구 1인당 GDP 5만 달러인 유럽국가들에 근접한 수준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동일한 개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 인구 1인당 GDP와 중국 국가혁신지수('13년)

●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브릭스 국가 중 중국(19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30위권 밖*으로 중국은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 브라질과 인도는 각각 38위와 39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러시아와 남아공은 전년대비 1위 하락해 33위와 36위에 머무름
- 중국은 혁신환경과 혁신성과, 기업혁신의 3개 부문에서 브릭스 국가 모두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냈으며 혁신자원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지식창출 부문에서는 남아공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2015년 7월

〔그림 5〕 BRICS 국가의 부문별(1급 지표) 혁신지수 비교('13년)

〔표 2〕 중국 국가혁신지수의 5개 부문 순위 추이 변화('05~'13)

연도	혁신자원	지식창출	기업혁신	혁신성과	혁신환경	혁신지수 순위
2005	31	37	17	17	27	25
2006	32	34	17	16	28	25
2007	33	34	14	13	27	22
2008	33	33	12	9	23	21
2009	31	32	18	6	16	22
2010	30	29	15	5	18	20
2011	30	24	15	5	19	20
2012	30	18	15	14	14	19
2013	29	19	13	11	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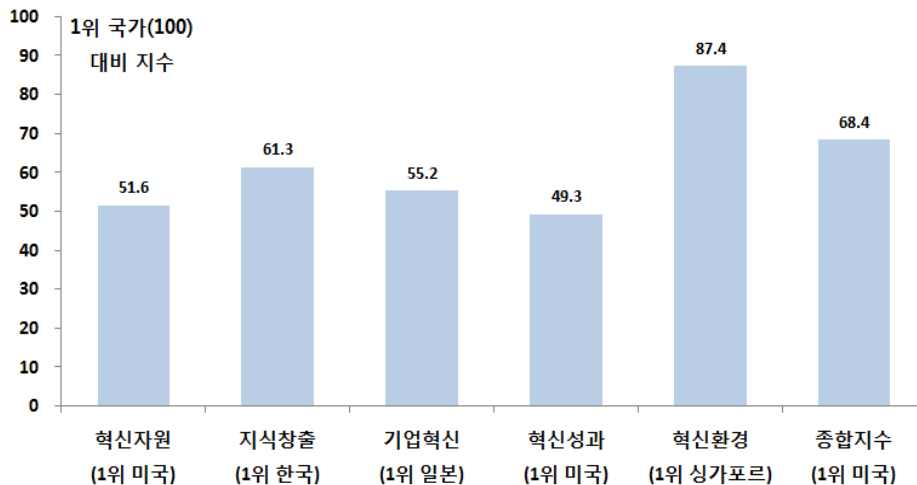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 중국의 5대 부문(1급 지표)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혁신자원 부문은 5개 부문중 상승세가 가장 낮아서 '05년 31위에서 '12년 29위로 2위 상승했는데, 이는 이 지표가 인구규모와 경제성장단계와 관련이 있어 단기간에 큰 변화가 힘들다는 성격에 기인
- 지식창출 부문은 '05년 37위에서 '13년 19위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논문 및 특허 등의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았음에 기인
- 기업혁신 부문은 '13년 13위로 전년대비 2위 상승하였는데, 제11차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대변
- '13년 혁신성과 부문은 11위, 혁신환경 부문은 13위로 지적재산권의 성장과 보호 강화, 벤처투자 지원 강화, 반독점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

●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혁신역량의 측면에서 혁신 강국에 비해 발전의 여지가 큰 상황

-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혁신 강국에 비해서 아직 혁신 인프라 취약, 혁신자원 축적 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종합 혁신지수가 낮음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2015년 7월

〔그림 6〕 5대 부문별 중국 국가혁신지수(1위 국가 대비 지수값, '13년)

4. 요약 및 정리

● 우리나라는 5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어 종합 4위를 나타냄

- 혁신자원 부문 2위, 지식창출 부문 1위, 기업혁신 부문 3위로 전년대비 모두 1위 상승하였으며 5개 부문 종합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4위

● '13년 중국 국가혁신지수에서 중국은 19위로 평가되었으며 미국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

- 미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비교대상 40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도 전년과 동일한 19위 기록
- 10위 권 내에서 볼 때 큰 변화는 덴마크가 전년대비 3위 상승한 6위를 나타냈으며 반대로 핀란드는 전년대비 3위 하락한 10위를 차지
- 40개국 전체의 전년대비 순위변화는 대체로 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 '과학기술 대국'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평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13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19위)하였으나 시계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 : '01년 37위 → '04년 26위 → '07년 22위 → '10년 20위 → '13년 19위

- 중국의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기술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 또한 향상되어 '대국'에서 '강국'으로 변모했다고 평가

●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는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며 중국과 혁신형 국가와의 혁신역량 격차도 지속적으로 축소

- 중국은 개혁개방이 이후 '10년 국내총생산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지난 10년간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안정적으로 높아져서 '13년 53.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3년에 비해서 13.4%p 증가한 셈
 - * 대상년도 이전 5년 기간 동안의 GDP 연평균 성장률 중에서 기술진보에서 기인한 정도
 - ** '08년~'13년 사이 중국의 GDP는 연평균 9.3% 성장하였으며 이중 53.1%가 기술진보에서 기인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19위를 기록했으나 상위 국가와의 지수 격차는 감소
 -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68.4점으로 순위변동은 없으나 전년보다 3.2점이 상승하였으며 18위와의 격차는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듦
-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혁신역량의 측면에서 혁신 강국에 비해 발전의 여지가 큰 상황

● 중국은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의 혁신역량 수준을 추월하고 있으며 브릭스(BRICS)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중국의 혁신지수는 인구 1인당 GDP 5만 달러인 유럽국가들에 근접한 수준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동일한 개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브릭스 국가 중 중국(19위)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30위권 밖*으로 중국은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혁신역량을 나타냄
 - * 브라질 : 38위, 인도 : 39위, 러시아 : 33위, 남아공 : 36위

[통계표]

[표3] 중국 국가혁신지수와 5대 부문별 지수 순위 변화

국가	국가혁신지수 순위		
	2013년	2012년	증감
미국	1	1	-
일본	2	2	-
스위스	3	3	-
한국	4	4	-
이스라엘	5	5	-
덴마크	6	9	↑ 3
스웨덴	7	6	↓ 1
네덜란드	8	8	-
독일	9	10	↑ 1
핀란드	10	7	↓ 3
영국	11	12	↑ 1
싱가포르	12	11	↓ 1
프랑스	13	13	-
아일랜드	14	17	↑ 3
노르웨이	15	14	↓ 1
오스트리아	16	15	↓ 1
호주	17	16	↓ 1
벨기에	18	18	-
중국	19	19	-
룩셈부르크	20	20	-
뉴질랜드	21	21	-
캐나다	22	22	-
슬로베니아	23	23	-
아이슬란드	24	24	-
이탈리아	25	25	-
스페인	26	26	-
체코	27	27	-
포르투갈	28	29	↑ 1
헝가리	29	28	↓ 1
그리스	30	30	-
터키	31	31	-
폴란드	32	33	↑ 1
러시아	33	32	↓ 1
루마니아	34	34	-
슬로바키아	35	36	↑ 1
남아공	36	35	↓ 1
멕시코	37	37	-
브라질	38	38	-
인도	39	39	-
아르헨티나	40	40	-

국가	혁신자원 부문 순위		
	2013년	2012년	증감
미국	1	1	-
한국	2	3	↑ 1
핀란드	3	2	↓ 1
이스라엘	4	8	↑ 4
덴마크	5	5	-
일본	6	4	↓ 2
스웨덴	7	6	↓ 1
아이슬란드	8	7	↓ 1
독일	9	9	-
스위스	10	10	-
오스트리아	11	14	↑ 3
슬로베니아	12	11	↓ 1
네덜란드	13	16	↑ 3
호주	14	12	↓ 2
싱가포르	15	13	↓ 2
노르웨이	16	15	↓ 1
프랑스	17	17	-
벨기에	18	19	↑ 1
영국	19	20	↑ 1
캐나다	20	18	↓ 2
뉴질랜드	21	22	↑ 1
체코	22	21	↓ 1
아일랜드	23	23	-
스페인	24	24	-
러시아	25	25	-
룩셈부르크	26	27	↑ 1
포르투갈	27	26	↓ 1
그리스	28	29	↑ 1
중국	29	30	↑ 1
이탈리아	30	28	↓ 2
헝가리	31	31	-
폴란드	32	32	-
터키	33	37	↑ 4
슬로바키아	34	33	↓ 1
아르헨티나	35	34	↓ 1
루마니아	36	36	-
브라질	37	35	↓ 2
인도	38	38	-
멕시코	39	39	-
남아공	40	40	-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표3〕 중국 국가혁신지수와 5대 부문별 지수 순위 변화(계속)

국가	지식창출 부문 순위		
	2013년	2012년	증감
한국	1	2	↑ 1
스위스	2	1	↓ 1
일본	3	3	-
뉴질랜드	4	7	↑ 3
아일랜드	5	9	↑ 4
영국	6	5	↓ 1
호주	7	8	↑ 1
네덜란드	8	6	↓ 2
미국	9	10	↑ 1
벨기에	10	11	↑ 1
헝가리	11	12	↑ 1
이탈리아	12	15	↑ 3
이스라엘	13	4	↓ 9
스페인	14	16	↑ 2
남아공	15	13	↓ 2
그리스	16	14	↓ 2
싱가포르	17	17	-
슬로베니아	18	22	↑ 4
중국	19	18	↓ 1
루마니아	20	26	↑ 6
캐나다	21	21	-
덴마크	22	20	↓ 2
포르투갈	23	29	↑ 6
스웨덴	24	19	↓ 5
폴란드	25	27	↑ 2
아이슬란드	26	23	↓ 3
프랑스	27	24	↓ 3
체코	28	31	↑ 3
오스트리아	29	28	↓ 1
독일	30	30	-
핀란드	31	32	↑ 1
터키	32	25	↓ 7
노르웨이	33	33	-
슬로바키아	34	34	-
인도	35	35	-
멕시코	36	37	↑ 1
아르헨티나	37	36	↓ 1
브라질	38	38	-
러시아	39	39	-
룩셈부르크	40	40	-

국가	기업혁신 부문 순위		
	2013년	2012년	증감
일본	1	1	-
미국	2	2	-
한국	3	4	↑ 1
이스라엘	4	6	↑ 2
스웨덴	5	7	↑ 2
독일	6	5	↓ 1
프랑스	7	9	↑ 2
핀란드	8	8	-
스위스	9	3	↓ 6
오스트리아	10	11	↑ 1
덴마크	11	10	↓ 1
슬로베니아	12	13	↑ 1
중국	13	15	↑ 2
룩셈부르크	14	14	-
네덜란드	15	12	↓ 3
벨기에	16	16	-
이탈리아	17	17	-
터키	18	29	↑ 11
영국	19	21	↑ 2
러시아	20	22	↑ 2
캐나다	21	18	↓ 3
스페인	22	20	↓ 2
아일랜드	23	23	-
체코	24	25	↑ 1
노르웨이	25	24	↓ 1
포르투갈	26	29	↑ 3
아이슬란드	27	26	↓ 1
루마니아	28	28	-
호주	29	27	↓ 2
그리스	30	30	-
헝가리	31	32	↑ 1
폴란드	32	35	↑ 3
싱가포르	33	31	↓ 2
뉴질랜드	34	33	↓ 1
멕시코	35	37	↑ 2
인도	36	34	↓ 2
남아공	37	36	↓ 1
브라질	38	38	-
슬로바키아	39	40	↑ 1
아르헨티나	40	39	↓ 1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표3〕 중국 국가혁신지수와 5대 부문별 지수 순위 변화(계속)

국가	혁신성과 부문 순위		
	2013년	2012년	증감
미국	1	1	-
일본	2	2	-
스위스	3	3	-
노르웨이	4	4	-
싱가포르	5	6	↑ 1
룩셈부르크	6	5	↓ 1
아일랜드	7	7	-
프랑스	8	8	-
덴마크	9	9	-
영국	10	10	-
중국	11	14	↑ 3
호주	12	11	↓ 1
한국	13	12	↓ 1
독일	14	13	↓ 1
네덜란드	15	16	↑ 1
스웨덴	16	15	↓ 1
오스트리아	17	17	-
이스라엘	18	20	↑ 2
이탈리아	19	18	↓ 1
벨기에	20	21	↑ 1
캐나다	21	19	↓ 2
핀란드	22	22	-
스페인	23	23	-
뉴질랜드	24	24	-
그리스	25	27	↑ 2
아이슬란드	26	25	↓ 1
헝가리	27	26	↓ 1
멕시코	28	28	-
브라질	29	29	-
체코	30	30	-
포르투갈	31	31	-
슬로베니아	32	32	-
슬로바키아	33	35	↑ 2
아르헨티나	34	34	-
러시아	35	33	↓ 2
폴란드	36	38	↑ 2
터키	37	37	-
루마니아	38	36	↓ 2
인도	39	39	-
남아공	40	40	-

국가	혁신환경 부문 순위		
	2013년	2012년	증감
싱가포르	1	1	-
스위스	2	3	↑ 1
핀란드	3	2	↓ 1
룩셈부르크	4	5	↑ 1
독일	5	6	↑ 1
노르웨이	6	5	↓ 1
미국	7	8	↑ 1
영국	8	9	↑ 1
네덜란드	9	7	↓ 2
뉴질랜드	10	10	-
스웨덴	11	3	↓ 8
캐나다	12	12	-
중국	13	13	-
일본	14	11	↓ 3
오스트리아	15	14	↓ 1
아일랜드	16	19	↑ 3
벨기에	17	16	↓ 1
덴마크	18	21	↑ 3
프랑스	19	22	↑ 3
호주	20	17	↓ 3
이스라엘	21	18	↓ 3
한국	22	20	↓ 2
아이슬란드	23	22	↓ 1
인도	24	25	↑ 1
남아공	25	24	↓ 1
체코	26	27	↑ 1
터키	27	26	↓ 1
슬로바키아	28	33	↑ 5
포르투갈	29	28	↓ 1
멕시코	30	29	↓ 1
폴란드	31	32	↑ 1
루마니아	32	38	↑ 6
러시아	33	34	↑ 1
헝가리	34	36	↑ 2
이탈리아	35	37	↑ 2
브라질	36	30	↓ 6
스페인	37	31	↓ 6
슬로베니아	38	35	↓ 3
그리스	39	40	↑ 1
아르헨티나	40	39	↓ 1

자료)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국가혁신지수보고 2014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5년 제10호

발간물 명 : 2014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7-130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조사분석실
Tel. 02 589 2245 Fax. 02 589 2191